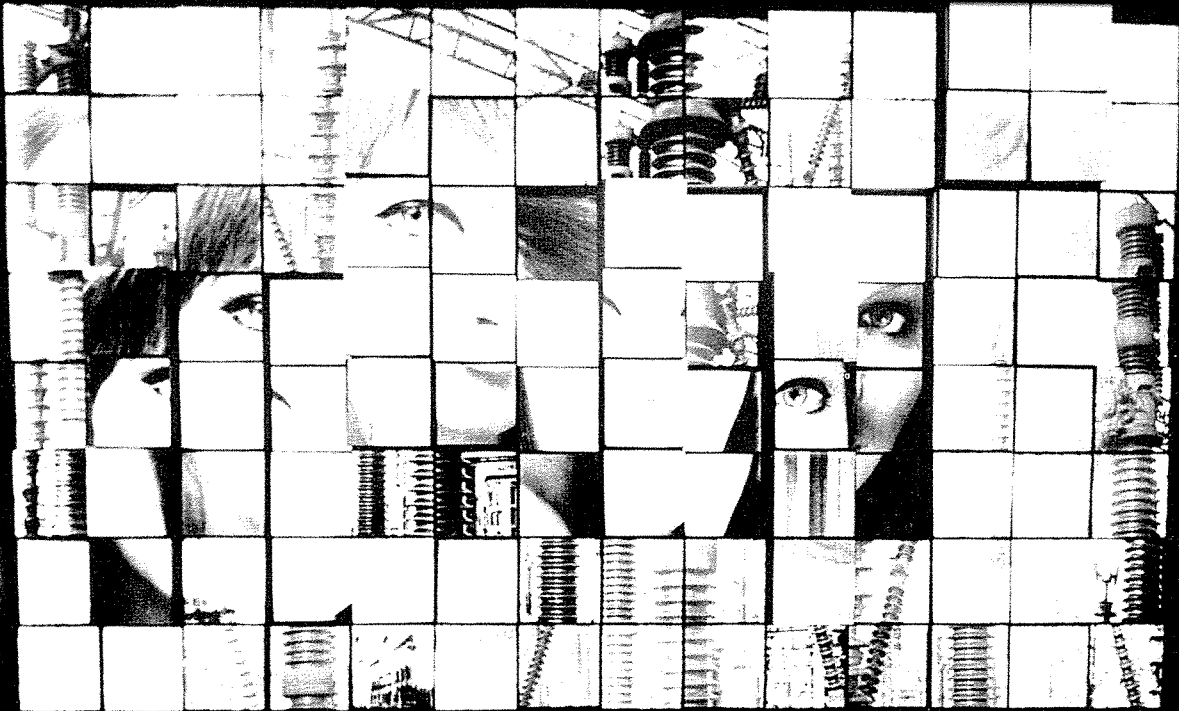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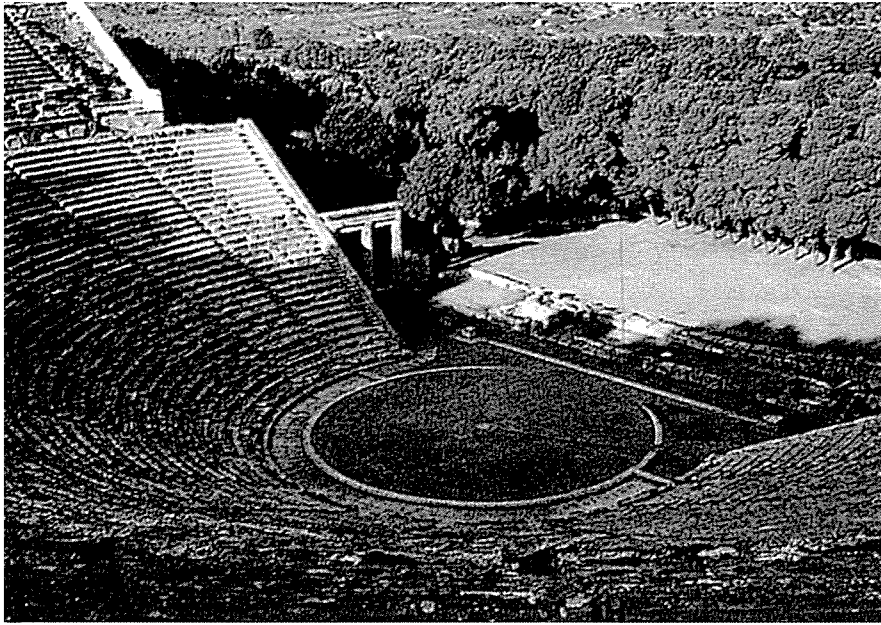
〈과학과 연극의 이상적 만남〉

# ‘효과 증폭시켜 상상력 확대’

글\_고승길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kaats@hanmail.net



스보보다의 폴리에크란적 투영무대



그리스의 야외극장

**과**학 기술공학의 만능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과학을 거부하는 연극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의 본질에는 자연과 인간 본래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인위적인 것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을 기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부에 숨기고 있다. 말하자면 연극은 과학을 거부하려는 성향과 과학을 수용하려는 성향을 양면적으로 지니면서 다채로운 역사를 꾸며온 것이다.

그런데 과학을 거부하는 연극의 밑바닥에는 과학이 인간을 왜곡하고 비인간화한다는 과학혐오의 관념이 깔려 있다. 이같은 입장을 대표하는 연극인으로 폴란드의 연출가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있다. 그는 현대라는 시대가 과학의 산물인 텔레비전, 영화의 출현과 마스크의 발달로 연극의 영역을 침식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다시금 연극의 본질을 확인하고 이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혁신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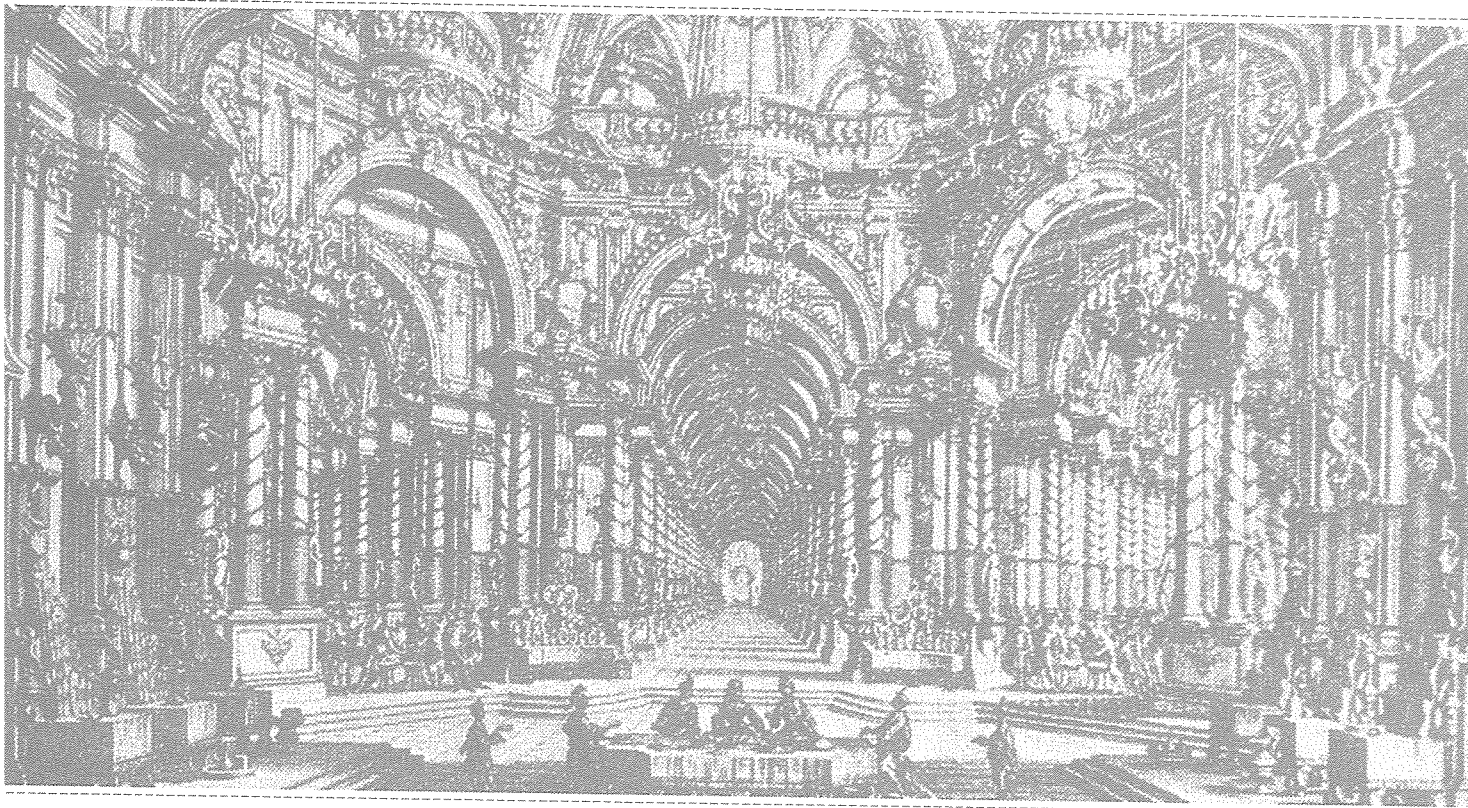
#### 과학을 거부하는 연극과 과학을 수용하는 연극

그가 주장하는 이상적 연극은 텔레비전과 영화처럼 과학과 테크닉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학과

기술공학이 지닌 만능적 힘과 연극의 예술적 상상력을 절충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총체연극이라든가 스펙터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연극을 여러 예술적 질서의 구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리기에 기계공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무대효과, 음악효과, 조명효과는 연극의 예술적 근원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을 수용하지는 입장을의 연극인은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기피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복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계가 끝난 후에 비로소 예술적 상상력의 확대를 위해 여러 과학적 요소를 기구화하고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에크란(polyekran), 라테르나 마지카(laterna magic) 등의 연극적 이용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무대미술가 요셉 스토프보다가 이러한 과학 수용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극인이다. 그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광학의 세례를 받은 예술가답게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은 창조활동을 가능케 한다”라는 확고한 주장을 갖고 있다. 그는 전기적 장치가 인간을 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것처럼 현대 예술의 성패는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극장에서 현대적인 기술장치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작업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화학, 전기학, 기계학, 건축학 관계의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주어진 무대 미술적 재료와 도구에 대해 무대 미술가에게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행하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 병렬식 무대

###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연극사

과학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 연극이 존립할 수 있다는 그로토프스키 같은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극의 역사는 연극예술이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해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연극과 과학은 마차의 두 바퀴처럼 서로 보조하는 중에 공존의 길을 걸어왔다.

기원 전 4~5세기에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무엇보다 1만 5천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과 무대로 이름이 나있는데 이러한 극장의 건축을 위해 최고의 건축술과 장비는 물론, 배우의 대사를 전달하기 위해 음향학적 장치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페리아크토이(periaktoi: 일종의 회전무대 장치), 에키클레마(ekkyklema: 현대적인 슬라이딩 스테이지의 원형), 메카네(mechane: 일종의 기중기 형태), 카로니오이(charonoi: 지하의 망령 등을 무대 아랫 부분에서 나타나게 하는 장치) 같은 무대기구를 개발함으로써 그리

스 연극이 종교적 의식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실적 구체성을 띤 예술로 변모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연극예술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표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식적, 시각적 완성만 추구했다. 과학적 건축설비로 마련된 로마의 대형 풀장에 군선과 노예를 배치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장면을 연출했다고 해도 그것이 눈요기 위주의 비예술적인 것이었다든가, 갖가지 기계설비를 동원하여 중세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과 천사의 출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단순히 시각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도 연극이 과학의 힘을 빌려 그 자체를 외식화, 시각화하려는 경향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병렬식 무대장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장치법은 크

기가 다른 화면을 순서적으로 병렬시킴으로써 깊이와 입체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인데 나중에는 하나의 소실점이 아니라 3개의 소실점을 가진 매우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 들어 연극예술이 독자적인 조형미를 추구하게 된 데에는 전기기술과 광학의 개발부터 힘입은 바가 많다. 오늘날 극장에서 사용하는 조명용의 백열전구는 1882년에 열린 뮌헨 전기박람회의 가설극장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전에는 샹들리에, 석유 램프, 가스등이 극장용 조명으로 사용되었다.

전기조명의 예술적 사용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것을 광학적 기초 위에 실천한 사람은 아돌프 아피아(1862~1928)였다. 그에 의하면 연극에서의 조명은 결코 사실적 가치보다는 음악처럼 모든 형상의 내적 근원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여러 종류의 조명 기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연극의 정서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조명이 화가의 팔레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때까지 배경화가가 그림 물감으로 나타냈던 색채는 조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색유리로 된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투사하는 투영식 무대장치(projected scenery)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학적 이론은 그 후 사진술과 영화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술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스토포다의 투영적 연극에서 보듯이 현대에 와서 어떤 조명기술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다.

### 과학과 연극의 이상적 만남을 위하여

수천년에 걸친 연극사의 여러 사실을 돌아보거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모해 가는 현대연극의 여러 양상을 연구해 볼 때 과학이 연극적 상상력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학의 합리적 지식과 방법은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통해 연극의 내용과 환경을 변화시켰

다. 그것은 배우술, 극작술, 연출술, 무대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촉진하거나 주도했으며 극장과 관객식의 환경을 보다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놓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연극사의 여러 곳에서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연극과의 협력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방법과 기능만을 고집했던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로마의 연극, 중세의 종교극, 르네상스의 연극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 가깝게는 스토포다의 투영적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 스토포다의 폴리테크란 기술이 아무리 새로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배우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무대 위에서 배우의 육체적, 연기적 기능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연극이 그 자체의 고정이념과 관습에 얽매인 나머지 과학의 방법과 그 효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고 있다. 그러한 경우를 19세기 사실주의 연극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의 연극은 사실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광학과 조명기술을 외면한 결과 무대의 사실화에도 실패하고 배우의 연기를 평면화하는 잘못도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과학과 연극의 이상적인 결합이다. 그것은 예술적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과 연극이 조화 있는 교류와 협력을 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극예술의 핵심이어야 할 배우의 육체적 가능성과 배우와 관객의 자유로운 정신적 만남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과학과 예술의 이상적 만남이라는 현대의 이상론은 하나의 물거품에 불과하다. ㉔



글쓴이는 1943년생. 중앙대 대학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 연극의 연구와 현지조사를 위해 100회 이상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동양연극연구』와 『한국연극과 동양연극』이 있으며, 동양연극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